

운전자 의식 분석을 통한 불법 주·정차 행태 개선방안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종학, 권혁민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차질서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임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바로 잡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사회 전체에 복합적인 영향으로 시민전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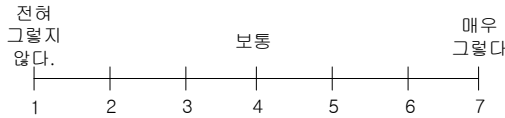
인천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상설기동반)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잘못된 주차질서 의식과 불법 주·정차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운전자 의식 분석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운전자들의 주차행태에 대해 불법 주·정차 장소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32가지의 다양한 설문문항을 5가지의 카테고리(개인판단적 측면, 개인편의의식 측면, 개인피해의식 및 합리화, 비용·시설적 측면, 사회적의식 측면)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8개구에서 수행하였으며,



〈그림 1〉 리커트 7점 척도

구별 40명씩 총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1:1 대인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운전자들이 주차 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로 구성하였으며,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화 하였다. 각 문항별 점수는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로 응답사례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화평균을 활용하였다.

주차행태 문항 전체에 대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은 서로 묶어서 6가지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응답자 그룹은 평소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장소별로 “재래시장 주변”, “관공서 주변”, “은행 주변”, “주택가 주변”, “아파트 단지 주변”, “업무지역 주변” 등 6개 장소(집단)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운전자의 5가지 의식태도(개인판단적 측면, 개인편의의식 측면, 개인피해의식 및 합리화, 비용·시설적 측면, 사회적의식 측면) 설문문항별 리커트 7점 척도화의 6개 장소 평균점수 산출
- 분산분석(ANOVA)을 통해 6개 장소간(집단간)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운전자의 5가지 의식태도별 설문문항에 대해 의식 차이를 분석
- 6개 장소간(집단간) 불법 주·정차 의식차이 중에서 어느 장소간(집단간) 의식차이가 유의한지에 대한 검증(Tukey-Test의 HSD 다중비교방법)

〈표 1〉 조사의 개요

조사대상	• 인천광역시 각 구별로 거주하는 운전자 (320명)
조사일시	• 2007년 9월 17일 ~ 21일 (5일간)
조사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1:1 대인면접
조사항목	• 주차행태 32가지 설문문항(주)

주: 최상진 외(2001), “주차유발에 관여되는 위반상황 해석양식과 위반자들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제7권, 제1호, pp91~117.(설문항목 재구성)

〈표 2〉 개인 판단적 측면

(1) 주차구획선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차를 할 수도 있다.
(2) 주택가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적당한 곳에 주차할 수 있다.
(3) 이번도로에서 주차금지 표지가 없으면 주차해도 상관없다.
(4) 남에게 혹은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는 해도 무방하다.
(10)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목적지가 가까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주차해도 무방하다.

〈표 3〉 개인 편의의식 측면

(5)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손님이 많을 경우 쇼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해도 무방하다.
(6) 공원이나 문화시설 같은 곳에서 주차장이 만원이라면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주차단속은 완화되어야 한다.
(8) 주차하기가 편하거나 주차장을 찾기가 귀찮아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14)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17) 도로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서 먼 곳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표 4〉 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

(7) 많은 사람들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9) 내집 근처이므로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다.
(11)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도 혼잡할 때 비워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12) 대형음식점 앞 도로는 주차구역이 아니어도 음식점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
(13)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라면 반드시 주·정차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다.
(16)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불법주차해도 상관없다.

〈표 5〉 비용 · 시설적 측면

(15)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8) 목적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29) 불법주차가 허용되지 않거나 주차요금이 높은 장소를 가야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30)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어떻게든 이용한다.
(31) 주차요금이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32) 주차장 안내체계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찾기 힘들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표 6〉 사회적 의식 측면

(24) 불법주차 문제는 범칙금 인상이나 단속강화보다는 운전자의 의식에 맡겨야 한다.
(25) 주차위반자를 보면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7) 누가 불법주차를 하려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28) 주차 위반자를 보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표 7〉 주차관리에 대한 인식 측면

(19) 사람들이 주차규정을 지키는 것은 준법정신보다는 벌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 지금처럼 주차요금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주차위반 단속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21)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 금지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22) 주차공간 부족과 정책부재 때문에 위반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23) 지금같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위반은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6)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칙금 인상과 같은 강력한 단속을 펴는 길 밖에 없다.

〈표 8〉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개인 판단적 측면)

설문항목	재래시장	관공서	은행	주택가	아파트	업무지역	평균 점수
(1) 주차구획선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차를 할 수도 있다.	3.0	3.3	3.4	3.3	4.2	3.0	3.4
(2) 주택가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적당한 곳에 주차할 수 있다.	4.2	4.4	4.3	4.5	4.1	3.8	4.2
(3) 이면도로에서 주차금지 표지가 없으면 주차해도 상관없다.	2.9	2.6	2.6	2.3	3.5	4.2	3.0
(4) 남에게 혹은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는 해도 무방하다.	2.5	2.3	2.4	2.2	3.3	3.2	2.7
(10)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목적지가 가까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주차해도 무방하다.	4.0	3.8	3.4	2.2	3.0	2.8	3.2

II. 불법 주·정차 의식 분석

1. 개인 판단적 측면

개인 판단적 측면에서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의식은 주차구획선, 주차금지표지 등이 없는 곳에서 남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판단을 갖고 있으며, 다만 주택가지역에서는 불편을 주지 않는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의식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 판단적 측면은 (3), (4), (10)번 문항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그룹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업무지역과 재래시장 주변 운전자에게서 다른 장소의 운전자와 다른 의식을 갖고 있으며, (1), (2)번 문항에서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설문항목별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를 보면, (2)번 문항을 제외하고 평균이하의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각 설문항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일방통행제를 시행하여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박차 공간을 공급할 경우, 불법 주·정차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 개인 편의의식 측면

개인 편의의식 측면에서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의식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부분 덜 견기 위한 이기심으로 주차하기 편한 곳이나

<표 9> 분산분석 결과 (개인 판단적 측면)

설문항목	항목	제공합	평균제공	F	유의확률
(1) 주차구획선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차를 할 수도 있다.	집단-간	24.994	4.999	1.381	.232
	집단-내	872.123	3.619		
	합계	897.117			
(2) 주택가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적당한 곳에 주차할 수 있다.	집단-간	5.519	1.104	.410	.842
	집단-내	648.918	2.693		
	합계	654.437			
(3) 이면도로에서 주차금지 표지가 없으면 주차해도 상관없다.	집단-간	44.050	8.810	2.513*	.031
	집단-내	844.914	3.506		
	합계	888.964			
(4) 남에게 혹은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는 해도 무방하다.	집단-간	38.144	7.629	2.351*	.042
	집단-내	781.905	3.244		
	합계	820.049			
(10)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목적지가 가까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주차해도 무방하다.	집단-간	38.206	7.641	2.365*	.040
	집단-내	778.571	3.231		
	합계	816.777			

주1: 분산분석은 평균값을 기초로 여러 집단을 비교하고, 이들 집단간에 차이점이 있는지 가설 검정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통계 분석 기법임

주2: * 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함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먼 곳에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의식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재래시장과 아파트주변 운전자의 경우, 주차위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다른 장소의 운전자와 다른 의식을 갖고 있었다.

개인 편의의식 측면은 (5),(8),(14)번 문항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그룹간 인식의 차이가 났으며, (6),(17)번 문항에서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설문항목별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를 보면, (14)번 문항을 제외하고 각 설문항목에 대해서 낮은 리커트 척도점수가 나타났다.

<표 10>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개인 편의의식 측면)

설문항목	재래 시장	판공서	은행	주택가	아파트	업무 지역	평균 점수
(5)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손님이 많을 경우 쇼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해도 무방하다.	1.4	1.3	1.4	1.4	1.6	1.9	1.5
(6) 공원이나 문화시설 같은 곳에서 주차장이 만원이라면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주차단속은 완화되어야 한다.	3.6	2.5	3.2	3.3	2.9	2.9	3.1
(8) 주차하기가 편하거나 주차장을 찾기가 귀찮아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3.9	1.8	2.5	1.7	2.5	2.0	2.4
(14)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5.1	3.8	3.4	3.3	4.7	3.4	4.0
(17) 도로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서 먼 곳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2.0	1.9	1.9	1.9	2.4	1.8	2.0

〈표 11〉 분산분석 결과 (개인 편의의식 측면)

설문항목	항목	제공합	평균제공	F	유의확률
(5)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손님이 많을 경우 쇼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해도 무방하다.	집단-간	30.50	6.10	2.636*	.024
	집단-내	557.85	2.32		
	합계	588.36			
(6) 공원이나 문화시설 같은 곳에서 주차장이 만원이라면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주차단속은 완화되어야 한다.	집단-간	5.77	1.16	0.272	.928
	집단-내	1022.82	4.24		
	합계	1028.59			
(8) 주차하기가 편하거나 주차장을 찾기가 귀찮아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집단-간	136.34	27.27	7.322*	.000
	집단-내	897.51	3.72		
	합계	1033.85			
(14)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집단-간	35.36	7.07	2.443*	.035
	집단-내	697.64	2.89		
	합계	732.99			
(17) 도로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서 먼 곳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집단-간	.72	.14	.057	.998
	집단-내	609.75	2.53		
	합계	610.47			

주: * 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함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재래시장과 아파트주변 운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편의위주의 주차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개인편의의식측면에서 주차시설공급부족의 이유만을 내세워 본인의 편의의식에 기반한 주차위반에 대해서 합리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 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 측면

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 측면에서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의식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주차금지구역,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주·정차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주택가, 아파트의 경우 집 근처 일부 주차위반에 대한 합리화 의식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 측면은 (9),(12),(16)번 문항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그룹간 차이가 있으며, (7),(11),(13)번 문항에서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설문항목별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를 보면, (9)번 문항을 제외하고 각 설문항목에 대해서 낮은 리커트 척도점수가 나타났다.

〈표 12〉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 측면)

설문항목	재래 시장	관공서	은행	주택가	아파트	업무 지역	평균 점수
(7) 많은 사람들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2.0	1.7	2.0	1.8	2.0	1.8	1.9
(9) 내 집 근처이므로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다.	3.5	2.1	2.4	4.3	4.9	3.1	3.4
(11)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도 혼잡할 때 비워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1.7	1.6	1.8	2.1	1.6	2.1	1.8
(12) 대형음식점 앞 도로는 주차구역이 아니어도 음식점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	2.8	1.6	2.3	2.1	2.6	2.0	2.2
(13)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라면 반드시 주·정차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다.	2.4	1.8	2.4	2.1	2.4	1.9	2.2
(16)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불법주차해도 상관없다.	3.4	2.4	2.5	2.2	3.0	1.8	2.6

〈표 13〉 분산분석 결과 (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 측면)

설문항목	항목	제곱합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7) 많은 사람들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집단-간	2.447	.489	.131	.985
	집단-내	899.407	3.732		
	합계	901.854			
(9) 내집 근처이므로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다.	집단-간	65.202	13.040	3.928*	.002
	집단-내	800.012	3.320		
	합계	865.215			
(11)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도 혼잡할 때 비워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집단-간	37.844	7.569	1.607	.159
	집단-내	1134.748	4.708		
	합계	1172.591			
(12) 대형음식점 앞 도로는 주차구역이 아니어도 음식점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	집단-간	45.396	9.079	2.751*	.019
	집단-내	795.251	3.300		
	합계	840.648			
(13)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라면 반드시 주·정차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집단-간	14.116	2.823	.836	.525
	집단-내	813.633	3.376		
	합계	827.749			
(16)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불법주차해도 상관없다.	집단-간	61.321	12.264	3.678*	.003
	집단-내	803.586	3.334		
	합계	864.907			

주: * 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함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주택가, 아파트주변 운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위반에 대한 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운전자는 주·정차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비용·시설적 측면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불법주차의 원인을 주차시설공급부족이라는 데 대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이 비싸거나 주차안내체계의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주차단속이 시행되거나 주차요금

〈표 14〉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비용·시설적 측면)

설문항목	재래시장	관공서	은행	주택가	아파트	업무지역	평균점수
(15)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6	6.2	5.2	4.6	6.0	4.6	5.4
(18) 목적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4.7	5.0	4.4	4.6	5.8	4.0	4.8
(29) 불법주차가 허용되지 않거나 주차요금이 높은 장소를 가야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5.6	6.1	5.1	4.2	5.5	5.8	5.4
(30)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어떻게든 이용한다.	2.3	1.8	2.2	1.7	2.9	1.8	2.1
(31) 주차요금이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2.9	3.6	2.7	2.7	3.0	2.7	2.9
(32) 주차장 안내체계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찾기 힘들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3.8	4.5	3.8	2.9	3.4	5.1	3.9

〈표 15〉 분산분석 결과(비용·시설적 측면)

설문항목	항목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5)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집단-간	12.571	2.514	1.281	.273
	집단-내	473.024	1.963		
	합계	485.595			
(18) 목적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집단-간	6.742	1.348	.518	.762
	집단-내	626.837	2.601		
	합계	633.579			
(29) 불법주차가 허용되지 않거나 주차요금이 높은 장소를 가야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집단-간	17.262	3.452	1.721	.130
	집단-내	483.410	2.006		
	합계	500.672			
(30)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어떻게든 이용한다.	집단-간	54.748	10.950	3.467*	.005
	집단-내	761.106	3.158		
	합계	815.854			
(31) 주차요금이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집단-간	3.295	.659	.175	.972
	집단-내	907.507	3.766		
	합계	910.802			
(32) 주차장 안내체계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찾기 힘들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집단-간	33.667	6.733	2.137	.062
	집단-내	759.386	3.151		
	합계	793.053			

주: * 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함

이 높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인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시설적 측면은 (30)번 문항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그룹간 차이가 있으며, (15),(18),(29),(31),(32)번 문항에서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설문항목별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를 보면, (15),(18),(29)번 문항이 높은 리커트 척도점수가 나타났다.

5. 사회적 의식 측면

사회적 의식 측면에서 주차위반자를 이기적이거나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으나 범칙금 인상, 단속강화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6개 장소간 운전자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 (사회적 의식 측면)

설문항목	재래시장	관공서	은행	주택가	아파트	업무지역	평균점수
(24) 불법주차 문제는 범칙금 인상이나 단속강화보다는 운전자의 의식에 맡겨야 한다.	3.3	3.6	3.4	2.6	2.9	3.2	3.2
(25) 주차위반자를 보면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3.7	3.3	3.8	3.4	4.2	4.4	3.8
(27) 누가 불법주차를 하려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2.7	3.3	2.8	2.5	3.7	2.3	2.9
(28) 주차 위반자를 보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8	2.1	2.2	2.1	2.8	2.0	2.3

〈표 17〉 분산분석 결과 (사회적 의식 측면)

설문항목	항목	제공합	평균제공	F	유의확률
(24) 불법주차 문제는 범칙금 인상이나 단속강화보다는 운전자의 의식에 맡겨야 한다.	집단-간	22.777	4.555	1.251	.286
	집단-내	877.271	3.640		
	합계	900.049			
(25) 주차위반자를 보면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집단-간	31.438	6.288	2.058	.071
	집단-내	736.286	3.055		
	합계	767.725			
(27) 누가 불법주차를 하려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집단-간	6.939	1.388	.499	.777
	집단-내	669.838	2.779		
	합계	676.777			
(28) 주차 위반자를 보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집단-간	12.851	2.570	.835	.526
	집단-내	741.376	3.076		
	합계	754.227			

주: * 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함

6. 주차관리 의식 측면

주차관리 의식측면에서 운전자들은 주·정차 금지 규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강력한 주차위반 단속이 필요하며, 불법주차원인이 주차공간부족, 정책부재 때문이라도 주차 위반자는 비난받아야 함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인상 등 강력

〈표 18〉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주차관리에 대한 인식 측면)

설문항목	재래시장	관공서	은행	주책가	아파트	업무지역	평균점수
(19) 사람들이 주차규정을 지키는 것은 준법정신보다는 벌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7	5.1	3.9	4.1	5.0	4.7	4.6
(20) 지금처럼 주차요금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주차위반 단속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3.5	2.9	2.9	3.2	3.7	3.2	3.2
(21)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 금지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2.7	3.4	2.6	2.9	3.8	2.3	3.0
(22) 주차공간 부족과 정책부재 때문에 위반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3.9	3.0	3.3	3.2	3.6	3.7	3.5
(23) 지금같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위반은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5	3.1	3.6	3.3	5.2	4.5	3.9
(26)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칙금 인상과 같은 강력한 단속을 펴는 길 밖에 없다.	2.3	1.8	2.5	2.0	2.8	1.8	2.2

〈표 19〉 분산분석 결과 (주차관리에 대한 인식 측면)

설문항목	항목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9) 사람들이 주차규정을 지키는 것은 준법정신보다는 벌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집단-간	12.218	2.444	.885	.492
	집단-내	665.256	2.760		
	합계	677.474			
(20) 지금처럼 주차요금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주차위반 단속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집단-간	7.695	1.539	.478	.793
	집단-내	776.766	3.223		
	합계	784.462			
(21)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 금지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집단-간	13.999	2.800	.799	.551
	집단-내	844.317	3.503		
	합계	858.316			
(22) 주차공간 부족과 정책부재 때문에 위반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집단-간	4.993	.999	.344	.886
	집단-내	698.732	2.899		
	합계	703.725			
(23) 지금 같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위반은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집단-간	26.738	5.348	1.765	.121
	집단-내	730.274	3.030		
	합계	757.012			
(26)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칙금 인상과 같은 강력한 단속을 펴는 길 밖에 없다.	집단-간	14.717	2.943	.811	.543
	집단-내	875.032	3.631		
	합계	889.749			

주: * 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함

한 단속만으로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어, 운전자의 식, 홍보 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집단간 다중비교 검증

앞 장에서는 6개 집단의 인식차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 장에서는 6개 집단 중에서 인식차이에 있어 유의성이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간인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6개 집단의 인식차이가 있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Tukey-Test의 HSD 다중비교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인식차이가 검증된 두 집단을 <표 20>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불법

<표 20> 다중비교(Tukey HSD) 결과

구분	문항	(I) 장소	(J) 장소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개인 판단적 측면	(3) 이면도로에서 주차금지 표지가 없으면 주차해도 상관없다.	은행주변	업무지역주변	-1.2465*	.4362	.049
		주택가주변	업무지역주변	-1.3372*	.4374	.027
	(4) 남에게 혹은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는 해도 무방하다.	주택가주변	업무지역주변	-1.3782*	.4208	.014
개인 편의 의식 측면	(10)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목적지가 가까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주차해도 무방하다.	재래시장주변	주택가 주변	1.0536*	.3168	.011
		(5)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손님이 많을 경우 쇼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해도 무방하다.	재래시장주변	업무지역주변	-1.1552*	.3421
	주택가 주변	업무지역주변	-1.1442*	.3554	.016	
	(8) 주차하기가 편하거나 주차장을 찾기가 귀찮아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재래시장주변	관공서 주변	1.6757*	.5321	.020
		재래시장주변	주택가 주변	1.9564*	.3401	.000
		은행주변	주택가 주변	1.2462*	.3599	.007
	(14)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재래시장주변	은행주변	0.9287*	.2984	.023
개인 피해 의식 및 합리화	(9) 내 집 근처이므로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다.	관공서 주변	주택가 주변	-1.5548*	.5155	.031
		관공서 주변	아파트 단지주변	-2.0250*	.6548	.024
		은행주변	주택가 주변	-1.0333*	.3398	.029
	(12) 대형음식점 앞 도로는 주차구역이 아니어도 음식점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	재래시장주변	관공서 주변	1.6605*	.5008	.012
(16)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불법주차해도 상관없다.	재래시장주변	업무지역주변	1.5365*	.4106	.003	
비용 시설적 측면	(30)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어떻게든 이용한다.	재래시장주변	주택가 주변	1.0884*	.3132	.007
		은행주변	주택가 주변	0.9752*	.3314	.038

주1: Tukey HSD검정법은 전반적 검증이 유의할 경우 관심이 되는 개개의 집단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사후검증 중에 한 가지 방법임

주2: * 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함

주·정차 장소에 따라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운전자 의식에 따라 주차관리 정책을 제안하였다.

1. 개인 판단적 측면

“(3) 이면도로에서 주차금지 표지가 없으면 주차해도 상관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업무지역주변에 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과 은행주변, 주택가 주변에 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 간에 인식 차이가 다른 집단 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지역주변에 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남에게 혹은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는 해도 무방하다.”는 문항 역시 업무지역주변에 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주택가 주변에 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목적지가 가까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면 주차해도 무방하다.”는 재래시장에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업무지역과 재래시장의 경우, 불법 주·정차 하는 운전자의 의식은 개인 판단적 측면에서 본인의 주차위반행위를 합리화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편의 의식 측면

“(5)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손님이 많을 경우 쇼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해도 무방하다.”는 문항에서 재래시장 및 주택가 주변 주차위반자와 업무지역 주변 주차위반자간의 인식 차이가 다른 집단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지역 주변에 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주차하기가 편하거나 주차장을 찾기가 귀찮아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는 문항에서 재래시장 주차위반자와 관공서 및 주택가 주차위반자간 인식차이가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재래시장 주차위반자가 더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주택가 주차위반자는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은행주변 주차위반자보다 덜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4) 사람들이 주차위

반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는 이기심 때문이다.”는 문항에서는 재래시장과 은행주변의 주차위반자간 인식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래시장 주변 주차위반자가 더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업무지역 주변 주차위반자의 경우 시간가치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장소 주차위반자보다 큰 것으로 보이며, 재래시장 주변 주차위반자는 물건을 하역하거나 장보기 등으로 다른 장소에 비해 개인편의 의식측면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개인피해의식 및 합리화 측면

“(9) 내 집 근처이므로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문항에서 주택가 및 아파트 등 주거지역 주변 주차위반자와 관공서 및 은행주변의 주차위반자간 인식차이가 다른 집단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주변 주차위반자가 더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대형음식점 앞 도로는 주차구역이 아니어도 음식점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는 문항에서 재래시장 주변 주차위반자와 관공서 주변 위반자간 인식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재래시장 주변 위반자가 더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6)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불법주차해도 상관없다.” 문항에서 재래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자와 업무지역 주변 위반자간 인식차이가 다른 집단간 차이보다 컸으며, 재래시장 위반자가 더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거지역과 재래시장 주변 주차 위반자는 각각 위반지역내 자신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합리화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피해의식 및 합리화 정도는 재래시장 주변 위반자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래시장주변의 주차단속이 시장 내 영업활동과 생업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어떤 장소의 위반자보다 개인피해의식과 합리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4. 비용·시설적 측면

“(30)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보

다는 자가용을 어떻게든 이용한다.”는 문항에서 재래시장과 은행주변의 위반자와 주택가 주변 위반자간 인식차이가 가장 컸으며, 재래시장과 은행주변 위반자가 더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볼 때, 재래시장과 은행주변의 자가용 의존도가 높으며, 이를 감안한 적정수준의 주차시설공급과 주차단속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1. 분석결과 종합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운전자의 5가지 의식태도(개인 판단적 측면, 개인편의의식 측면, 개인피해의식 및 합리화, 비용·시설적 측면, 사회적 의식 측면)의 설문항목들을 6개 장소별로 리커트 7점 척도화 점수분포로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판단·편의주의·합리화 측면에서 일부 장소의 주·정차 위반자의 인식 차이가 있으나, 남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주차하기 편한 곳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더라도 주·정차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시설적 측면과 사회적 의식 측면에서 주차시설공급의 부족 및 주차정책부재가 불법 주·정차의 원인이고 이는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주차위반자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주차관리에 대한 인식측면에서 운전자들은 법칙금 인상, 강력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 의식 개선과 홍보 등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분산분석(ANOVA)을 통해 6개 장소간(집단간)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운전자의 5가지 의식태도별 설문문항에 대해 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 판단적 측면”에서 3, 4, 10번 문항, “개인 편의의의식 측면”에서 5, 8, 14번 문항, “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 측면”에서 9, 12, 16번 문항, “비용·시설적 측면”에서 30번 문항이 유의수준 0.05에서 장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의식 측면”과 “주차관리에 대한 인식”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그룹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관념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이 불법 주·정차

장소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개인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관점(개인의 불법 주·정차 장소)에 따라서 개인의 주차행태를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개 장소간(집단간) 불법 주·정차 의식차이 중에서 어느 장소간(집단간) 의식차이가 유의한지에 대한 검증(Tukey-Test의 HSD 다중비교방법)한 결과, 불법 주·정차 발생 특정장소 간에 의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주차위반의 감소를 위한 단속 및 각종 캠페인 등을 시행 시 지역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달라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불법 주·정차 행태 개선을 위한 주차정책방안

첫째, 주차문화 의식 확립을 위해서 주차체험관 건립, 반복 단속되는 차주에 대한 교육, 운전면허취득에 따른 사전교육, 학교교육에 의한 주차문화 의식 교육, 주유소(정유사)와 제휴한 주차문화 의식개선훈보, 대중매체를 통한 불법 주·정차의 피해 알리기 등의 교육 및 홍보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주차시설의 정비,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불법주차단속전담 주차관리공단설립, 행정경찰력 부여 및 과태료체납자 제재방안수립 등의 정책 및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제한된 단속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단속에 있어 단속관리지역의 설정, 주차단속지표설정, 주차단속운영기준, 단속인력 및 장비 운영방안 등 인건 광역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그림 2〉 단속장비의 효율화 : 이동식 CCTV(자동형)를 탑재한 단속차량(계양구)

참고문헌

1. 김영진(2000), “도시가로의 불법 주·정차 발생유형 분석을 통한 주차

- 정책 추진방향 제시”, 새서울터전, 제7권 3호, 서울특별시, pp.28~44.
2. 고동욱·정정숙·김호생·김종효·유원식(2002),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방안(강서구)”, 제11회 문제해결사례 우수논문집,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 pp.277~312.
 3. 권영인·김황배·오승훈(2004), “불법주차 단속지표 및 기준의 개발에 관한 연구:부천시사례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4권 제1호, 대한토목학회, pp.31~36.
 4. 송미화(2002), “구마다 주차단속기준 형평성 달라”, 녹색환경 통권5호, 시민연합 환경신문고, pp.56~59.
 5. 이기우(2001), “불법주차단속과 시민참여”, 자치행정(160), 지방행정연구소, pp.8~10.
 6. 이홍범(2003),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체계 개편방안”, 서울터전:시정연구논총, 제10권 통권 제37호, 서울특별시, pp.141~161.
 7. 인천광역시(2006), 교통정비중기계획(최종보고서).
 8. 인천광역시(2007), 주택가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최종보고서).
 9. 윤형관(2005), “불법주차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통권 제18호, pp.117~159.
 10. 조왕래·이주형·이주상·양승수·조숙진(2002), “시민의 주차질서 의식 함양방안(동대문구)”, 제11회 문제해결사례 우수논문집,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 pp.61~86.
 11. 한종학·권혁민(2006), 불법 주·정차 행태개선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12. 최상진·손영미·김정인(2002), “신호 및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남녀 운전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연구논집, 제21권, pp.135~156.



한종학



권혁민